

# 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환경문제 관심 집중

### 항공청, 환경평가서 협의내용 수용...5일 조달청에 실시설계서 제출 다도해국립공원 다양한 보호종 서식...생태계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국토 서남단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흑산공항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항공청)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날 중순계 흑산공항 시행사인 항공청과 한국환경연구원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해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절차다.

협의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이 인·허가만 거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항공청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해 5일 조달청에 최종 실시설계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항공청이 수용하기로 한 협의내용에는 흑산공항 사업부지가 다도해국립공원으로 이곳에 서식하는 조류, 식물, 곤충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흑산공항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의 대봉산을 깎아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해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체계적인 사후영향조사가 필요하고 환경영역 저

감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부지 내 자생종 또는 보호 가치 있는 주요 식물종의 경우 훼손 수량의 10%는 옮겨 심어야 한다. 식생보전 II, III등급에 해당하는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등의 훼손도 줄여야 한다.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예기뿔소뿔구리는 포획·이주 후 대체서식지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2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흑산공항 예정부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면서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만큼 대체 서식지 조성 시 흑산도 주변 도서생태계로 범위를 확대해 서식 가능 예정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 시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 및 영향 정도 등을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감안해야 하고 철새가 집중적으로 통과하는 시기(봄·가을) 등도 고려해 회피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시행 전 흑산 해역의 배영 수중소음을 수심별로 측정해 설정된 목표 기준(공사·발파 시 140dB)을 재검토하고 목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됐다.



흑산공항 조감도



흑산공항 예정 부지

공사 시 진행되는 발파 작업 시에는 해양포유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괭이 등의 가정 주파수를 고려해 음향경고장치를 작동해 해양포유류를 회피시켜야 한다.

사업 부지 동쪽에서 주민들이 소를 방목해 기르고 있으므로 주민들과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사업 시행 전 부지 인근 바다의 소음을 수심별로 측정해 설정된 목표 기준(공사·발파 시 140dB, 수중소음과 20dB 이내)을 재검토하고 목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됐다.

항공청은 이 같은 협의 내용 안에 "이행할 수 있

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공항 건설 시 고려할 수 있는 충분히 실행 가능한 안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시동이 걸리자 지역 환경단체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애초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청이 흑산공원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이상 환경영향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없이도 훼손되고 사라지지 않게 국립공원 부지에서 해제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흑산공항(신안군 흑산면 예리)은 길이 1200m 활주로, 계류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로

570억 원 규모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된다. 흑산공항이 완공되면 신안 흑산도에서 서울까지 소요되던 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흑산공항은 지난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이 고사됐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환경부가 국립공원 위원회를 열고 흑산공원 건설 예정지를 국립공원 부지에서 해제, 신안 비금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5.5km² 구역을 대체 부지로 설정하면서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화제의 판결

###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연장 신청했다라도 체류 만료 전 담당 직원에 안내 받았다면?

#### 광주지법 "기간내 신청으로 봐야"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체류기간 전 담당직원에게 안내를 받은 것이라면 기간내 신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기니국적 A(여·38)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우리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입국해 조선대에서 석사학위를 수료하고 2021년 구직비자(D-10)으로 변경해 3차례 체류기간(지난해 6월 7일까지)을 연장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비자연장허가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3년) 등을 이유로 감점을 받아 허가기준 점수에 미달해 불허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감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난해 6월 8일 신청한 연장신청이 출

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방문 전날 온라인으로 예약을 통해야만 할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만료기간 전 사전방문을 예약하려 했으나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어 지난해 6월 1일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했다.

이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온라인 예약을 통해 서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기간 만료 다음 날인 6월 8일 예약날짜를 잡고 이날 연장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사전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도 당일 처리가 불가능해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미리 접수 받는 '가접수'가 있음에도 A씨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한 방문 예약은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준하는 접수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감점을 한 것은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짜게 판다" 중고사이트에 허위 매물 올리고 "같은 고향 출신" 속여 노인들에게 돈 뜯고

#### 광주서부경찰, 사기범 1인 단 검거

광주 서구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잇따라 절창신세를 지게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을 가로챈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문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를 통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의 가

로렌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온라인에 떠도는 등산·캠핑용품 사진을 다운받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짜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올린 뒤, 피해자들이 A씨에게 돈을 보내면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달아났다가 한 달 여 만인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 한 카페에서 검거됐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해 돈을 뜯은 70대 B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 농성동 길거리에서 7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같은 고향 출신이다", "차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6만 원을 빌리고 갔지 않은 혐의다.

B씨는 지난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노인들에게서 25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의 돈을 갈취해 수감됐다가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B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현재도 같은 혐의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순천시 후진하던 중장비에 깔려 작업자 사망

#### 가스배관 공사현장 60대 참변

####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순천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중장비에 깔려 숨졌다.

1일 순천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

께 순천시 조례동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64)씨가 땅을 다지는 중장비인 로드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도로포장용 유착제를 뿌리다 후진을 하던 로드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드롤러 운전자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현

장에는 신호수와 유도자가 있었지만 이들 역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현장에서는 가스 배관 공사를 마치고 도로를 재포장하는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을 수사하는 한편 신호수 등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당국도 중대산업재해법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